

몽골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현대몽골어와 한국어의 사동 대조 연구*

김 기 성**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현대몽골어의 태(態, хэв, voice) 체계 속에서 '사동(使動, causative)'에 대한 유형 및 구성, 또한 그의 의미, 기능, 용법 등을 정리해 살펴보고, 이후 이를 기준으로 여기에 대응 가능한 한국어 '사동'과 서로 대조 분석해 보았다. 아울러 이러한 대조를 통해 이들이 서로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 등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양 언어의 학습자들에게 담화, 문맥 등의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게 나타나는 사동의 올바른 사용 법과 이를 위한 기초자료 등을 제시해 보았다.

현대몽골어와 한국어 모두 자동사, 타동사 어느 것이나 사동 접사(몽골어 : '-үүл', '-лгa', '-гa', '-aa', 한국어 : '-이-', '-하-', '-리-', '-가-', '-우-', '-구-', '-추-', '-사-', '-으키-' 등)를 연결해 타동사 사동을 만든다. 이러한 파생적 사동이 일반 보편적이다.

현대몽골어와 한국어의 사동은 일반적으로 활용 방법 면에서 유사한 면을 보인다. 자동사에서 파생된 사동(사동문)의 경우 능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의 목적어가 되고, 새로운 주어가 들어가(나타나) 사용된다. 능동문의 주어가 사동문의 목적어가 되면서 목적격 어미(몽골어 : '-ыг/ийг, -г, 목적격 의미의 $\emptyset$ ', 한국어 : '-을/를, 목적격 의미의 $\emptyset$ ')를 취하게 된다. 타동사에서 파생된 사동(사동문)의 경우 능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의 부사어가 되며, 새로운 주어가 들어가(나타나) 사용된다. 능동문의 주어가 사동문의 부사어가 되면서 여·치격 어미(몽골어 : '-д/т', 한국어 : '-에게/-한테, -께/')나 또는 도구격 어미(몽골어 : '-аар', 한국어 : '-로(-로 하여금)')를 취하게 된다.

한국어의 사동(사동 표현, 사동법)은 일반적으로 1) '시키다'와 같은 어휘를 써서 사동문을 만드는 방식인 '어휘적 사동', 2) '-이-, -하-, -리-, -가-, -우-, -구-, -추-, -애-, -사-, -으키-' 등과 같은 파생접미사를 동사 뒤에 붙이고, 능동문의 주어를 목적어 또는 '-에게/한테/께' 형태의 부사(부사어)로 바꾸며, 새 주어를 도입함으로써 사동문을 만드는 '파생적 사동', 3) '-게 하다/만들다, -도록 하다/만들다'와 같은 통사적 구성을 동사 뒤에 붙이고, 새로운 주어를 도입함으로써 사동문을 만드는 방식인 '통사적 사동' 등으로 비교적 세분화되어 있는 반면, 현대몽골어의 사동은 '-үүл', '-лгa', '-гa', '-aa'와 같은 형태의 사동 접사를 동사의 어간에 연결해 사동의 의미를 표현하는 파생적 사동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한국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하지 못하다는 차이점을 갖는다.

[주제어] 몽골인 한국어 학습자, 양 언어의 학습자, 현대몽골어, 한국어, 사동, 피동, 능동, 태

* 이 연구는 2018학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단국대학교 연구전담 조교수 / komong@naver.com

I 목 차 I

I. 서 론	III. 현대몽골어와 한국어의 사동 대조
II. 현대몽골어의 사동	IV. 결 론

I. 서 론

본 연구는 현대몽골어의 태(態, хэв, voice) 체계¹⁾ 중에서 ‘사동(使動, causative)’²⁾에 대한 형태 및 구성, 또한 그의 의미, 기능, 용법 등을 정리해 살펴보고, 이후 이를 기준으로 여기에 대응 가능한 한국어의 ‘사동’³⁾과 서로 대조 분석해 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러한 대조 분석을 통해 이들이 서로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 등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고, 현대몽골어와 한국어 양 언어의 학습자들에게 담화, 문맥 등의 상황에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사동의 올바른 사용법과 이를 위한 기초자료 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몽골어 동사의 태의 범주는 행위주와 행위 간의 관계를 나타내며, 논리적으로 행위주에 해당되는 명사의 문법적 형식을 결정하는 동사의 한 형식이다(П.Бямбасан 1987: 43). 즉, 특정 행위의 수행에 있어서 논리적 측면의 실제 행위주 또는 사동주 등과 같이 행위주를 명명하는 명사를 문법적인 하나의 형태를 취하게 해 격 어미와 함께 어휘의 횡적 연쇄 통합 관계를 형성한다(П.Бямбасан 1987: 46). 이러한 점에서 몽골어의 동사의 태는 문법체계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형태이기도 하다.

특히 현대몽골어의 태 범주 속에서 사동(사동태)은 의미론 및 형태론적 유형, 통사론적 기능 면에서 다른

1) 현대몽골어의 ‘태(хэв, voice)’ 범주는 일반적으로 1) 능동태(өөрөө үйлдэх хэв : ө), 2) 사동태(үйлдүүлэх хэв : -уул², -лга⁴, -га⁴, -аа⁴), 3) 피동태(үйлдэгдэх хэв : -гд, -д, -т), 4) 공동태(үйлдэлцэх хэв : -лц), 5) 상호태(үйлдэлдэх хэв : -лд) 등과 같이 5개의 하위체계로 이루어진다. 몽골 학자 및 연구자들 저마다 명칭을 조금씩 달리 사용하기도 하지만 위에 언급한 명칭 외에 조금 부연 설명한 것 같은 명칭이 함께 쓰일 뿐 궁극적으로는 대개 같은 의미이다(* 참조 : Б.Базилхан 1966: 139-145, Ц.Өнөрбаян, Л.Жумдаан 2012: 150-152, Ю.Мөнх-Амгалан, Кан Шин 2014: 153). 앞에서 적고 있는 -уул², -лга⁴, -га⁴, -аа⁴는 각각 -уул(-үүл), -лга(-лго), -лгэ, -лгө), -га(-го, -гэ, -гө), -аа(-оо, -ээ, -өө)와 같은 변이형태의 축약 표기이다.

본고에서는 편집, 출판 등의 여러 사정으로 간혹 줄이 바뀌는 곳에 위치하는 몽골어 단어의 표기를 몽골어 정서법에 따라 제대로 올바르게 표기하지 못하고, 그냥 낱글자로 하나씩 떨어져 줄 바꿈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양해를 미리 구한다.

2) 본고에서 말하는 현대몽골어의 ‘사동(使動, causative)’이란 Rita Kullmann, D.Tserenpil(1996: 117-123), Цэндсүрэнгийн Тэрбиш(1994: 117-118) 등의 ‘causative voice(사동태)’와 Б.Базилхан(1966: 141-142), Ж.Жанчивдорж, Б.Рагчаа(1967: 100-101), Л.Мишиг(1978: 146-153), Д.Отгонсүрэн(1982: 29-54), П.Бямбасан(1987: 49-51), Ц.Өнөрбаян, Л.Жумдаан (2012: 151), Ю.Мөнх-Амгалан, Кан Шин(2014: 154-160) 등의 ‘үйлдүүлэх хэв(사동태)’를 가리킨다. 현대몽골어의 ‘태(態, хэв, voice)’ 범주 및 ‘사동태’에 대한 ‘үйлдүүлэх хэв’ 이외의 다양한 명칭에 대해서는 Ю.Мөнх-Амгалан, Кан Шин (2014: 152-160) 등을 참조할 수 있다. 필자는 본고에서 ‘사동’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3) 한국어의 ‘사동(被動)’은 학자 및 연구자들 저마다 논의의 필요성에 따라 ‘하임법’(최현배 1994: 411-420), ‘사동 표현/사동’(왕문용 · 민현식 1993: 22, 이관규 2005: 332-343), ‘사동법/사동 표현, 사동’/(서정수 1996: 1095-1126), ‘사동태/사동’/(이익섭 2005: 263), ‘사동법/사동’/(우형식 2003: 185-190, 김종록 2013: 327-339, 권재일 2013: 355-371, 남기심 · 고영근 · 유현경 · 최형용 2019: 462-471) 등으로 불려온 것을 가리킨다. 사동의 범주, 사동의 분류 등 한국어의 사동과 관련한 일부 선행 연구 업적들은 왕녕박(2017: 4-9) 등에서 비교적 자세히 살펴볼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이점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가장 널리 사용된다. 예를 들어 다른 태들은 타동사 또는 자동사 중에서 주로 어느 하나로 이루어지는 반면, 사동은 자동사이든 타동사이든 그 어느 것으로도 형성될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Б.Бажилхан 1966: 141).

한편, 한국어에 있어서 사동이란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이관규 2005: 332), “남으로 하여금 어떤 동작을 하게 하는 동작”(남기심 · 고영근 · 유현경 · 최형용 2019: 462) 등을 말하며, 이러한 사동의 표현법을 문법적으로는 사동법이라고 한다.

현대몽골어와 한국어 각각의 언어생활에 있어서 높은 빈도의 사용과 더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동의 올바른 이해와 사용은 몽골어와 한국어 양 언어의 학습자들에게 서로의 의사소통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더욱이 한국어의 사동(사동 표현, 사동법)은 일반적으로 1) 어휘적 사동, 2) 파생적 사동, 3) 통사적 사동이 있어서, 다양한 언어 상황에 따라 이들 가운데 하나의 유형을 선택해 사용하고 있지만, 몽골어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파생적 사동을 주로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⁴⁾

따라서 이러한 양 언어의 미묘한 문법적 차이는 결국 몽골인 한국어 학습자들뿐만 아니라 한국인 몽골어 학습자들에게까지도 자칫 혼란과 함께 잘못된 사용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때문에 이러한 혼란과 잘못된 사용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이들 간의 대조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각 개별 언어의 사동에 대한 소개, 연구들은 비교적 쉽게 찾아 볼 수 있지만, 현대몽골어와 한국어 간의 사동에 대한 비교, 대조 연구는 너무나 빈약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조 연구는 앞으로의 연구에 대한 기초 발판을 놓는다는 차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⁵⁾

필자는 우선 현대몽골어의 일부 교재 및 문법서 등에 소개되고 있는 몽골어의 사동과 그의 유형, 의미, 기능 등을 종합, 정리해 이를 논의의 기준으로 삼고, 그 다음 여기에 대응 가능한 유사 의미, 기능의 한국어 사동 표현들을 순차적으로 대조 분석해 보는 방법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가기로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대략 다음과 같다. 연구 목적과 필요성, 방법 등을 제시한 1장의 서론을 포함해, 2장에서는 현대몽골어의 사동에 대한 정의 및 유형, 의미, 기능 등을 종합, 정리해 이를 논의 대상의 기준으로 삼는다. 3장에서는 현대몽골어의 사동에 대응 가능한 한국어의 사동(사동 표현)을 형태 · 통사적 측면에서 서로 대조해 보기로 한다. 4장에서는 2장, 3장의 내용들을 요약해 결론짓기로 한다.

4) 한국어의 사동은 1) ‘시키다’와 같은 어휘를 써서 사동문을 만드는 방식인 ‘어휘적 사동’, 2) ‘-아-, -하-, -라-, -가-, -우-, -구-, -추-, -애-’와 같은 파생접미사를 동사 뒤에 붙이고, 새 주어를 도입함으로써 사동문을 만드는 방식인 ‘파생적 사동’, 3) ‘-게 하다/만들다, -도록 하다/만들다’와 같은 통사적 구성을 동사 뒤에 붙이고, 새 주어를 도입함으로써 사동문을 만드는 방식인 ‘통사적 사동’(김종록 2013: 321-333) 등으로 비교적 세분화되어 있는 반면에 현대몽골어의 사동은 주로 ‘-үүл’, ‘-лгa’, ‘-гa’, ‘-aa’와 같은 형태의 사동 접사를 동사의 어간에 연결해 사동의 의미를 표현하는 파생적 사동이 일반적이다.

5) 몽골어와 한국어 양 언어에 대한 독립된 단일 주제로서의 ‘사동(使動)’에 대한 비교, 대조 연구는 지금껏 단지 김기선(2006)에 서만 일부 접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밖에는 金芳漢 · 金周源 · 鄭堤文(1986: 122), 김기성(1994: 276-280), 유원수(2009: 138-139) 등과 같은 몇몇 서적 등에서 사동과 관련한 내용을 일부 소개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사동뿐만 아니라 사동과 관련이 있으며 태의 또 다른 하위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피동’에 대한 비교, 대조 연구는 채령텐템 절자야(2015), 김기성(2017) 등을 언급할 수 있는 실정이다.

II. 현대몽골어의 사동

현대몽골어의 사동은 일부 교재나 여러 문법서에서 ‘특정 행위를 행위주 스스로가 아닌 다른 자로 하여금 하게 할 의사를 표현한 동사의 형태’(Б.Базилхан 1966: 142), ‘특정 행위를 다른 자로 하여금 하게 하려는 생각을 표현’(Ц.Жанчивдорж, Б.Рагчаа 1967: 100), ‘해당 행위를 행위주가 다른 사람에게 하도록 시킨다거나 부탁 또는 허락하여 수행하게 하려는 생각을 주로 표현하거나, 또는 행위주의 잘못(실수나 착오)으로 인해 어떤 특정한 행위 상황에 봉착했다는 등의 생각을 표현’(Л.Мишиг 1978: 146), ‘동작·행위를 행위주 스스로가 아닌 다른 자로 하여금 하게 한다거나 시키려는 생각을 나타낸 형태’(Л.Лхагва 1976: 118-119), ‘어느 한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하나의 일을 시킨다거나, 어느 한 사람을 어떠한 일을 하게 한다는 등의 기본적인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것’(Д.Отгонсүрэн 1982: 31), ‘어떤 특정 행위를 수행하는 두 주체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타동사 성질의 유형’(Ц.Өнөрбаян, Л.Жумдаан 2012: 151) 등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즉, 사동은 서술어에서 나타나는 특정 동작·행위를 주어가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제3의 다른 자로 하여금 하게 하거나 어떤 상태에 이르게 하는 표현 형태(방법)이다.

(1) ᠠ. Цамц хатав.

① 옷이 말랐다.

ᠢ. Эгч цамц(ыг) хатаав.

① 누나는 옷(을) 말렸다마르게 했다, 마르도록 했다.

ᠳ. Багш эмнэлэг рүү очив.

① 선생님은 병원으로 갔다.

ᠡ. Багш эмнэлэг рүү(Батыг) очуулав.

① 선생님은 병원으로(바트를) 가게 했다가도록 했다.

ᠣ. Адуу хашаанаас гарчихжээ.

① 말이 울타리에서 나갔다.

ᠤ. Хүүхдүүд адууг хашаанаас гар(га)чихжээ.

① 애들이 말을 울타리에서 나가게 했다나가도록 했다, 내보냈다.

(2) ᠠ. Ээж зураг зурав.

① 엄마가 그림을 그렸다.

ᠢ. Ээж(надад) зураг зуруулав.

① 엄마는(나에게) 그림을 그리게 했다그리도록 했다.

② 엄마는(나에게 - 나를 위해 나에게 주려고 다른 누군가에게) 그림을 그리게 했다그리도록 했다.

ᠳ. Ангийн дарга баяраар туг барьсан.

① 반장이 축제에 깃발을 들었다.

᠒. Ангийн дарга баяраар(Цэцгээд) туг барилсан.

① 반장이 축제에(체츠게에게) 깃발을 들렸다(들게 했다, 들도록 했다).

᠓. Өвгөн аав захиа бичдэг.

① 할아버지가 편지를 쓰신다.

᠔. Өвгөн аав(надаар) захиа бичүүлдэг.

① 할아버지가(나로 하여금) 편지를 쓰게 하신다(쓰도록 하신다).

위의 (1), (2) 예문은 Д.Отгонсүрэн(1982: 13-14)의 예문들 중에서 발췌한 것들이다. 예문 (1. ㄴ, ㄷ, ㅂ)은 서술어(자동사)에 사동 접사를 연결하여 자동사에서 파생된 사동의 경우를, 예문 (2. ㄴ⁶, ㄷ, ㅂ)은 서술어(타동사)에 사동 접사를 연결하여 타동사에서 파생된 사동의 경우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몽골어에서는 자동사, 타동사 어느 것이라도 사동 접사(‘-уул’, ‘-лгa’, ‘-гa’, ‘-aa’)를 연결해 타동사로 만든다.⁷⁾ 즉, 파생적 사동이 일반 보편적이다.

예문 (1. ㄱ, ㄴ), (1. ㄷ, ㄷ), (1. ㅁ, ㅂ)은 각각 주동문과 사동문의 대립 예들이고, (1. ㄴ), (1. ㄷ), (1. ㅂ)은 자동사에서 파생된 사동문들이다. 이들 중 대표적으로 사동문 (1. ㄴ)을 살펴보면 주동문 (1. ㄱ)의 주어(цамц)는 사동문에서 목적격(대격)을 취한(또는 목적격 어미가 생략된 0 형태) 목적어/цамц(ыг)/가 되고, 사동문의 주어에는 어느 특정한 새로운 주어(эгч)가 나타나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ㄷ, ㄷ), (1. ㅁ, ㅂ)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러한 활용은 (1. ㄱ, ①), (1. ㄴ, ①)의 대응 표현처럼 한국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점은 몽골어 사동과 한국어 사동의 일부 유사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듯하다. 즉, 한국어의 경우에서도 자동사의 파생적 사동은 자동사에 파생접미사(‘-아-, -하-, -라-, -가-, -우-, -구-, -추-, -사-, -으키-’)를 붙이고, 주어를 목적어로 만든 뒤, 새로운 주어를 도입해 사용하기 때문이다(김종록 2013: 330).

한편, 예문 (2. ㄴ), (2. ㄷ), (2. ㅂ)은 타동사에서 파생된 사동문들이고, (2. ㄱ, ㄴ), (2. ㄷ, ㄷ), (2. ㅁ, ㅂ)도 역시 각각 주동문과 사동문의 대립 예들이다. 이들 중 대표적으로 사동문 (2. ㄴ)을 살펴보면 주동문 (2. ㄱ)의 주어(ээж)는 사동문에서 본인이 해당 행위의 직접적인 실제 행위주가 아니라 다른 행위자(надад)에게 해당 행위(зурах)를 하게 했음(시켰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동문의 경우는 주어가 어느 특정 행위의 직접적인 실제 행위주가 아니라 다른 행위자에게 행위를 하게 하는(시키)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사동문의 실제 행위주는 ‘надад’처럼 여·치격을 취하게 되거나 또는 (2. ㅂ)의 경우처럼 실제 행위주가 ‘надаар’와 같이 도구격을 취하기도 한다. 즉, 타동사에서 파생된 사동문의 경우 실제 행위자는 여·치격이나 도구격을 취한다.⁸⁾

6) 여기에서 예를 들고 있는 (2. ㄴ)의 ‘Ээж (надад) зураг зуруулав,’라는 문장은 원래 Д.Отгонсүрэн(1982: 13-14)의 원문에서는 ‘Ээж (надад) зураг үзүүлэв,’로 적고 있다. 오류로 보여진다. ‘зурав(그렸다)’라는 동사의 사동형이 필요함으로 논의의 전개상 ‘зуруулав(그리게 했다, 그리도록 했다)’로 바꾸어 적었다.

7) 예문 (2. ㄷ)의 ‘барилсан’은 ‘барь-(들다, 붙잡다)’에 ‘-уул’을 붙인 경우인데, 이처럼 동사의 어간이 ‘ь’나 ‘и’로 끝나는 단어에 연결할 때에는 마치 ‘-иул’처럼 사용된다. 또한 동사의 어간이 ‘ё, я, е, ю’로 끝나는 단어에는 마치 ‘-ул’처럼 사용된다. 동사 ‘барих(барь-)’의 어간 барь-에 ‘-уул’을 연결하면 ‘барь-’의 ‘ь’가 ‘и’로 바뀌고 거기에 ‘-уул’이 붙으므로 ‘барилуул(바리+уул)’이 되는데 몽골어 정서법 상 모음이 연달아 3개 연달아 나오는 경우가 없으므로 이중에서 ‘у’가 하나 탈락한 모양새이다. ‘-ул’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оёх(оё-)’라는 단어에 ‘-уул’을 연결하면 ‘оёуул’이 되는데 ‘ё’ 모음은 마치 ‘и+о’의 이중모음 같은 성격이므로 역시 모음이 연달아 3개가 오게 되기 때문에 ‘у’ 하나를 빼버린 모양새이다.

그런데 위의 (2) 예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약간 색다른 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주동문 (2. ㄱ, ㄷ, ㄹ)의 실제 행위주는 주어(‘ээж’, ‘ангийн дарга’, ‘өвгөн аав’)인데 반해 이에 대립하는 사동문의 예로 든 (2. ㄴ, ㄷ, ㄹ)의 실제 행위주는 주어(‘ээж’, ‘ангийн дарга’, ‘өвгөн аав’)가 아닌 ‘(надад)’, ‘(Цэцгээд)’, ‘(надаа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주동문(능동문)과 사동문의 대립 예를 잘못 든 것으로 판단된다.

사동문 (2. ㄴ, ㄷ, ㄹ)만을 따로 떼어 자체적으로 독자적 의미를 살펴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듯 보이지만 사실 주동문 (2. ㄱ, ㄷ, ㄹ)과 대립시켜 행위의 실질적 주체(실제 행위주)가 누구인지를 비교해 살펴보면 이들은 서로가 행위의 실질적 주체가 다른 엄연히 다른 의미의 문장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의 의견으로는 (2. ㄱ)에 대립하는 (2. ㄴ)의 타동 사동문은 ‘Би ээжид(ээжээр) зураг зуруулав./나는 엄마에게(엄마로 하여금) 그림을 그리게 했다./’로, (2. ㄷ)에 대립하는 (2. ㄷ)의 타동 사동문은 ‘Цэцгээ баяраар ангийн даргад(ангийн даргаар) туг бариулсан./체츠게(체체그)는 축제에(축제기간에) 반장에게 깃발을 들렸다./’로, (2. ㄹ)에 대립하는 (2. ㄹ)의 타동 사동문은 ‘Би өвгөн ааваар захиа бичүүлдэг./나는 할아버지로(할아버지로 하여금) 편지를 쓰게 한다./’로 각각 쓰여야 하는 것이 옳으리라 생각한다.

현대몽골어의 사동은 일반적으로 자동사나 타동사의 어간에 ‘-уул²’, ‘-лга⁴’, ‘-га⁴’, ‘-аа⁴’ 등과 같은 접사(파생 접사)를 연결해, 주어가 다른 행위자에게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한다는 의미를 지닌 타동사로 만든다. 일정한 연결 규칙에 따라 이들을 명확히 서로 분간해 사용하기란(연결하기란) 그다지 쉽지 않아서 어떤 특정한 연결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다. 어느 특정 접사를 연결한 자리에 임의로 다른 접사를 교환, 교체해서 쓸 수 없다. 동사 어간에 어느 접사가 연결되는가는 동사의 개별적 특성과 관련된다.

이 접사들은 어근형태소 뒤에는 직접 바로 올 수 없다. 동사 파생 접미사의 뒤 또는 동사 어간 뒤에 위치하며, 동사 상의 어미인 ‘-чих’, ‘-ч’, ‘-цгаа⁴’, ‘-зна⁴’, ‘-схий’의 앞쪽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접사들은 다른 어미들을 연결하는 동사 활용의 어간이 되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이를 ‘동사의 제2 어간(үйл үгийн хоёрдогч үндэс)’이라고도 한다(П.Бямбасан 1987: 43-44).

8) 이러한 타동 사동문에서 여·치격으로 구성된 실제 행위자는 때에 따라, 즉 문맥의 전후 상황이나 화용론적 의미, 서술동사의 성격 등에 의해 사실상 실제 행위주가 아니라 그저 서술어의 특정 행위를 받아들이게 되는 대상으로서 존재하기도 한다. 따라서 중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즉, (2. ㄴ)의 ‘Ээж (надад) зураг зуруулав.’와 같은 경우 여러 상황에 따라 (2. ㄴ. ①)의 ‘엄마는(나에게) 그림을 그리게 했다(그리도록 했다).’처럼 실제 행위주인 듯 해석될 수도 있고, 또는 (2. ㄴ. ②)의 ‘엄마는(나에게 - 나를 위해 나에게 주려고) (다른 누군가에게) 그림을 그리게 했다(그리도록 했다).’처럼 단지 그림 그릴 것을 받게 되는 대상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물론 이 예문의 경우는 엄밀히 말해 대부분 (2. ㄴ. ②)의 의미로 많이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이와 같은 타동 사동문에 있어서 어떤 직접적인 실제 행위자를 분명히 나타내고자 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여·치격 보다는 주로 도구격 어미 ‘-аар⁴’을 사용해 표현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예문은 아래와 같다.

ㄱ. Аав ээжээр хоол хийлгэсэн.

① 아빠는 엄마로(엄마로 하여금) 음식을 하게 했다(하도록 했다).

ㄴ. Аав ээжид хоол хийлгэсэн.

① 아빠는 엄마에게 음식을 하게 했다(하도록 했다).

② 아빠는 엄마에게(엄마를 위해 엄마에게 주려고) (다른 누군가에게) 음식을 하게 했다(하도록 했다).

ㄷ. Багш надад ном уншуулсан.

① 선생님은 나에게 책을 읽혔다(읽게 했다, 읽도록 했다).

② 선생님은 나에게(나를 위해 나에게 듣게 하려고) (다른 누군가에게) 책을 읽혔다(읽게 했다, 읽도록 했다).

ㄹ. Багш надаар ном уншуулсан.

① 선생님은 나로(나로 하여금) 책을 읽혔다(읽게 했다, 읽도록 했다).

여러 학자 및 연구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보편적으로 ‘-уул’ 접사는 단모음과 자음으로 끝나는 타동사나 자동사 어간에, ‘-ла’ 접사는 장모음이나 이중모음으로 끝나는 타동사나 자동사 어간에 모음조화 법칙에 따라 연결한다. ‘-га’ 접사는 주로 ‘р, л, д/т, с’ 자음으로 끝나는 자동사의 어간에 연결하지만 물론 일부 타동사에도 연결할 수 있다. ‘-аа’ 접사도 대부분 단모음이나 자음으로 끝나는 자동사에 연결하지만 역시 일부 타동사에도 연결할 수 있다(Б.Базилхан1966: 142, Ц.Жанчивдорж, Б.Рагчаа 1967: 100, Ш.Лувсанвандан 1968: 140-141, Л.Лхагва 1976: 118, Л.Мишиг 1978: 146-153, Л.Болд 1986: 125, П.Бямбасан 1987: 52, Ю.Мөнх-Амгалан, Кан Шин 2014: 155).

한편 Ц.Өнөрбаян, Л.Жумдаан(2012: 151)은 특정 행위를 수행하는 두 주체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타동성격의 태를 ‘사동태(үйлдүүлэх хэв)’라고 정의내리며, 아래의 (3), (4)와 같은 예문들을 예로 들면서 이들 사동(사동문)은 행위 주도자(제안자, 기획자), 행위 수행자, 행위를 받는 대상(행위에 관련되는 사물, 대상)간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언급하였다. 타동사에서 파생하는 사동과 자동사에서 파생하는 사동을 각각 구분해 설명하고 있다.

(3) 타동사에서 파생하는 사동

ㄱ. Ах ном уншив.

① 형이 책을 읽었다.

ㄴ. Ах надаар ном уншуулав.

① 형은 나로(나로 하여금) 책을 읽혔다(읽게 했다, 읽도록 했다).

ㄷ. Ээж үнээ саав.

① 엄마가 암소(암소 젖)를 짰다.

ㄹ. Ээж үнээ сааллав.

① 엄마가 암소(암소 젖)를 짜게 했다(짜도록 했다).

(4) 자동사에서 파생하는 사동

ㄱ. Ах гарав.

① 형이 나갔다.

ㄴ. Ах намайг гаргав.

① 형이 나를 내보냈다(나가게 했다, 나가도록 했다).

ㄷ. Ах Батаар намайг гаргуулав.

① 형이 바트로(바트로 하여금) 내보내게 했다(내보내도록 했다).

ㄹ. Цаас шатав.

① 종이가 탔다.

ㅁ. Бат цаас шатаав.

① 바트는 종이를 태웠다(타게 했다, 타도록 했다).

ㅂ. Бат надаар цаас шатааллав.

① 바트는 나로(나로 하여금) 종이를 태우게 했다(태우도록 했다(태웠다)).

위 예문에서 특이한 점은 (4. ㄷ), (4. ㄴ)처럼 사동 접사가 두세 개 겹쳐서 쓰이는 복합 형태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⁹⁾ 이러한 점은 특수한 경우이고 그다지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한국어에서도 간혹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사동 접사가 두세 개 연달아 연결되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은 단편적으로 서로 유사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엄밀히 들여다보면 몽골어에서는 이처럼 파생적 사동의 사동 접사로만 연달아 연결되지만, 한국어의 경우는 이러한 경우 외에도 여기에 통사적 사동 구성의 ‘-게 하다/만들다, -도록 하다/만들다’ 등의 말(어구)을 더하여 2중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실현하기도 한다.¹⁰⁾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서로 구성 요소(성분)의 차이점을 갖는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¹¹⁾

- 9) 몽골어에서 아주 흔하게 쓰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사동 접사가 이중으로(중첩하여) 나타나 쓰이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үйлдүүлэх хэвийн хоёр шат*(사동태의 두 단계)’(П.Бямбасан 1987: 54-57), ‘*нийлмэл үйлдүүлэх хэв*(복합 사동태), *нийлмэл үйлдүүлэх хэвт хэллэг*(복합 사동태를 취한 말)’(Д.Отгонсүрэн 1982: 35)이라고 한다. Ю.Мөнх-Амгалан, Кан Шин(2014: 158-159)에서는 이러한 사동 접사가 연달아 연결될 수 있는 경우를 1) ‘-уул⁴+уул²’, ‘-уул²+га⁴’, 2) ‘-лга⁴+уул²’, 3) ‘-га⁴+уул²’, ‘-га⁴+аа⁴’, 4) ‘-аа⁴+лга⁴’처럼 정리하고 그의 일부 대응 예들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1) ‘-уул²+уул²’, ‘-уул²+га⁴’ : ургуудуул, эргүүлүүл, зөөлрүүлүүл(зөөлөн болгуул-), орчуулга, хариулга
- 2) ‘-лга⁴+уул²’ : суулгуул, түүлгүүл
- 3) ‘-га⁴+уул²’, ‘-га⁴+аа⁴’ : гаргуул, хүргүүл, унагаа, сэргээ
- 4) ‘-аа⁴+лга⁴’ : хатаалга, тогтоолго (*진하게 눕혀 쓰기는 필자)

뿐만 아니라 의미적으로 불필요하게 더 들어간 것일 수도 있지만 간혹 세 개도 1) ‘-уул²+га⁴+уул²’, 2) ‘-аа⁴+лга⁴+уул²’, 3) ‘-га⁴+аа⁴+лга⁴’처럼 오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сэр+гэ+ээ+лгэ-(깨우게 하-, ...)’, ‘хат+аа+лга+уул-(말리게 하-, ...)’, ‘шат+аа+лга+уул-(태우게 하-, ...)’, ‘ас+аа+лга+уул-(피우게 하-, 붙이게 하-, ...)’ 등과 같은 단어와 신문 기사의 “Нэр төрөө сэргээлгэхээр шүүхэд хандсан.(명예를 회복시키게(되살리게, 되찾게, ...) 하려고 법원에 청원했다.)”과 같은 문장을 그 예로 들었다. (*сэргээлгэхээр’의 진하게 쓰기와 밀줄은 필자)

- 10) 파생적 사동의 특성으로 김종록(2013: 332)에서는 “매우 특수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사동 접미사가 두세 개 겹쳐서 쓰일 수 있다. 하지만 사동의 의미가 더 강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세우다(서-이-우-다), 재우다(자-이-우-다), 태우다(타-이-우-다), 키우다(크-이-우-다)’ 등과 같은 단어를 그 예로 들었다. 한편, 이러한 경우 외에 여기에(파생적 사동) ‘-게 하다/만들다, -도록 하다/만들다’ 등의 통사적 사동 표현의 말(어구)을 더 연결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면서 이것을 ‘2중 사동’(우형식 2003: 190), ‘복합 사동(법)’(김형배 1997: 38-39) 등으로 언급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 예들은 다음과 같다.

- ㄱ. 어머니가 철수에게 아이를 재우게 하셨다.(우형식 2003: 190)
(‘자’는 동작의 주체는 ‘아이’, ‘재우는’ 사동주는 ‘철수’, ‘-게 하신’ 사동주는 ‘어머니’)
- ㄴ. 아버지는 아들에게 일꾼을 부라-게/도록 하였다.(김형배 1997: 38-39)
(어휘-통사적 사동: 어휘사동사-게/도록 하/만들-)
- ㄷ. 감독은 일꾼에게 담을 높아-게/도록 하였다.(김형배 1997: 38-39)
(파생-통사적 사동: 사동접미사-게/도록 하/만들-)
- ㄹ. 의사는 보호자에게 환자를 운송-시키-게/도록 하였다.(김형배 1997: 38-39)
(합성-통사적 사동: -시키-게/도록 하/만들-)

본문의 몽골어 예문(4. ㄷ, ㄴ)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은 ㄱ)과 ㄷ)이다. 즉 몽골어의 경우에는 대부분 사동 접사로만 두세 개(간혹 3개의 예를 드는 경우는 Ю.Мөнх-Амгалан, Кан Шин(2014: 158-159) 참조) 연결되어 구성되지만 한국어는 이런 파생적 사동 외에 여기에 ‘-게 하다/만들다, -도록 하다/만들다’(통사적 사동) 등의 말이 연결되어 구성된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 11) 현대몽골어의 하나의 특정 사동 접사를 연결한 단일 사동 형태와 두 개의 사동접사를 연결한 복합 사동 형태의 일반적인 사용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또한 이에 대응시킬 수 있는 한국어의 대응 양상도 각각 다음과 같다. 단일 사동형과 복합 사동형은 발화 상황, 문맥, 화맥 등 여러 상황에 따라 사동주가 서로 같지 않다는(바뀌는) 등의 의미 변화가 나타난다.

- ㄱ. Гэрээс ачаагаа зөөж гаргалаа. (‘-га⁴’)
① 집에서 짐을 운반해 나가게(나가도록) 했다.

앞에서 언급한 여러 선행업적의 견해들을 종합, 정리해 보면 현대몽골어의 사동은 대략 다음의 <표 1>처럼 정리할 수 있었다. 즉, 현대몽골어의 사동 유형 또는 구성은 파생적 사동, 즉 문법적으로 자동사, 타동사를 할 것 없이 그 동사의 어간에 사동 접사(사동형 파생접사) ‘-уул²’, ‘-лга⁴’, ‘-га⁴’, ‘-аа⁴’ 등을 연결해 타동사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향후 이를 기준으로 한국어의 사동(사동 표현)과 서로 대조 분석해 보기로 한다. 좁은 의미에서만 본다면 형태론, 유형론 적 측면에서 서로 ‘파생적 사동(사동 접사 연결형)’ 끼리만 대조, 비교의 대상이라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어휘, 의미, 통사론적 측면에서도 함께 아울러 살펴보기로 한다.

<표 1> 현대몽골어 사동의 체계 및 유형, 구성

구분/체계/	유형, 구성	용례 ¹²⁾
파생적 사동 (사동 접사 연결형)	■ 동사 어간 + ‘-уул ² ’ (단모음과 자음으로 끝나는 타동사나 자동사 어간에 연결)	хар-/харуул-, ол-/олуул-, үз-/үзүүл-, хэвт-/хэвтүүл-, хөгж-/хөгжүүл-, ... (Ю.Мөнх-Амгалан, Кан Шин 2014: 155)
		ор-/оруул-(들어가게 하다, 집어넣다), таар-/тааруул-(맞추다), унш-/уншуул-(읽히다), бод-/бодуул-(생각케 하다), төр-/төрүүл-(남게 하다, 태어나게 하다), хөөр-/хөөрүүл-(뜨게 하다), хөгж-/хөгжүүл-(발전시키다), нэвтр-/нэвтрүүл-(통과시키다), ... (П.Бямбасан 1987: 52)
	■ 동사 어간 + ‘-лга ⁴ ’ (장모음이나 이중모음으로 끝나는 타동사나 자동사 어간에 연결)	суу-/суулга-, ой-/ойлго-, нээ-/нээлгэ-, хөө-/хөөлгө-, ... (Ю.Мөнх-Амгалан, Кан Шин 2014: 155)
		суу-/суулга-(앉히다), ой-/ойлго-(투시하게 하다), уу-/уулга-(마시게 하다), нээ-/нээлгэ-(열게 하다), хөө-/хөөлгө-(볼리다), ... (П.Бямбасан 1987: 52)

ᠤ. Гэрээс ачаагаа хүнээр зөөж гаргууллаа. (‘-га⁴+уул⁴’)

① 집에서 짐을 사람으로(하여금) 운반해 나가게 하도록 했다(나가도록 하게 했다).

ᠲ. Дүүгээр захиа бичүүллээ. (‘-уул²’)

① 동생으로(하여금) 편지를 쓰게(쓰도록) 했다.

ᠷ. Дүүг гуйж найзаар нь захиа бичүүлдүүлээ. (‘-уул²+уул²’)

① 동생을 졸라서(부탁해서) 친구로(하여금) 편지를 쓰게 하도록 했다(쓰도록 하게 했다).

ᠮ. Угаасан хувцсаа хатаав. (‘-аа⁴’)

① 빨래한 옷을 말렸다(마르게 했다, 마르도록 했다).

ᠨ. Угаасан хувцсаа дүүгээр хатаалгав. (‘-аа⁴+лга⁴’)

① 빨래한 옷을 동생으로(하여금) 말리게 했다(말리도록 했다).

ᠰ. Хүүхдүүдээр жимс түүлгэв. (‘-лга⁴’)

① 아이들로(하여금) 과일을 따게 했다(따도록 했다).

ᠣ. Багшид нь хэлж хүүхдүүдээр жимс түүлгүүлэв. (‘-лга⁴+уул²’)

① 선생님에게 말해서 아이들로(하여금) 과일을 따게 하도록 했다(따도록 하게 했다).

- 12) 각각의 사동 접사를 연결한 좀 더 많은 용례의 동사들과 예문들을 서로 중복되지 않게 따로 정리하거나 이의 의미 해석 등에 대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만, 본고에서는 지면 관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이들을 미처 체계적으로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일부의 용례만을 들고 있다. 전체 문장 내에서 한 단어는 전후 문맥의 상황 등 다양한 여건 속에서 때에 따라 여러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다반사임으로 일부 단어만의 단편적 해석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충분하다. 일부 단어들의 중복과 함께 해석, 번역 등에서 일부 미비하거나 부족한 점, 혹은 잘못된 점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 만약 그러한 부분들

구분/체계/	유형, 구성	용례 ¹²⁾
	■ 동사 어간 + ‘-га’ (주로 ‘р, л, д/т, с’ 자음으로 끝나는 자동사의 어간 및 그 밖의 일부 타동사 어간에 연결)	자동사 : гар-/гарга-, нор-/норго-, нис-/нисгэ-, хөдөл-/хөдөлгө-, ... 일부의 타동사 : шал-/шалга-, сур-/сурга-, тул-/тулга-, ол-/олго-, өмс-/өмсгө-, бэлд-/бэлтгэ-, дурс-/дурсга-, сонс-/сонсго-, ... (Ю.Мөнх-Амгалан, Кан Шин 2014: 155) ол-/олго-, хүр-/хүргэ-, бэлд-/бэлтгэ-, дурс-/дурсга-, өмс-/өмсгө-, сонс-/сонсго-, сур-/сурга-, тул-/тулга-, шал-/шалга-, ...¹³⁾ (П.Бямбасан 1987: 52)
	■ 동사 어간 + ‘-аа’ (대부분 단모음이나 자음으로 끝나는 자동사의 어간 및 그 밖의 일부 타동사 어간에 연결)	자동사 : буц-/буцаа-, тогт-/тогтоо-, бэлч-/бэлчээ-, өд-/өдөө-, ... 일부 타동사 : агс-/агсаа-, байц-/байцаа-, гүйц-/гүйцээ-, горьд-/горьдоо-, шавхар-/шавхараа-, хях-/хяхаа-, ялзал-/ялзлаа-, тох-/тохоо-, ... (Ю.Мөнх-Амгалан, Кан Шин 2014: 155) 타동사 연결이 극히 드물음. 주로 자동사에 연결. 일부의 타동사 : аг-/агсаа-(자게 하다, 무장하게 하다, 무장시키다 – 무기 등), байц-/байцаа-(감시하게 하다, 심문하게 하다, 조사하게 하다), горьд-/горьдоо-(기대하게 하다), гүйц-/гүйцээ-(끝내다, 끝내게 하다), хях-/хяхаа-(억누르다, 압박하다, 억누르게 하다, 압박하게 하다), ялзал-/ялзлаа-(삶게 하다 – 호물호물하게, 썩히다, 썩게 하다), ялзар-/ялзраа-(삭히다, 썩히다, 삭게 하다, 썩게 하다), шавхар-/шавхраа-(바닥나게 하다, 째내게 하다, 고갈되다), ... (П.Бямбасан 1987: 52)

Ⅲ. 현대몽골어와 한국어의 사동 대조

본 장에서는 앞에서 정리한 현대몽골어 사동의 일반적(기본) 유형 및 구성을 기준으로 이에 대응시킬 수 있는 한국어 사동을 서로 비교, 대조해 보기로 한다. 이러한 비교, 대조에 따라 두 언어의 사동에서 나타나는 특징 및 서로 간의 일부 유사점과 차이점 등을 살펴본다.

현대몽골어의 사동과 대응시켜 서로 비교, 대조해 볼 한국어의 사동 유형 및 구성에 대해 최현배(1994: 410-420), 임호빈·홍경표·장숙인(1989: 199-201), 우형식(2003: 185-190), 이익섭(2005: 276-281), 이관규(2005: 332-343), 최규수(2010: 242-268), 권재일(2013: 357-373), 김종록(2013: 327-339), 왕녕박(2017: 15-20) 등과 같은 일부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비슷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필자는 이들 중 비교적 잘 정리, 소개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김종록(2013: 327-339)의 서술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이 있다면 추후의 연구에서 바로잡기로 한다. 후속 연구를 기약하도록 한다.

13) П.Бямбасан(1987: 52)에서는 단지 ‘ол, хүр, бэлд, дурс, өмс, сонс, сур, тул, шал’과 같이 적고 있어서 이들의 사동 파생 접사 연결형은 필자가 임의로 집어넣었다.

어 사동의 유형, 구성을 아래의 <표 2>처럼 정리하고, 이를 몽골어와 비교, 대조해 보려고 한다.

한국어에서는 사동을 표현하는 3가지 방법이 있다. 한국어의 사동(사동 표현, 사동법)은 일반적으로 1) ‘시키다’와 같은 어휘를 써서 사동문을 만드는 방식인 ‘어휘적 사동’, 2) ‘-아-, -하-, -라-, -가-, -우-, -구-, -추-, -애-, -사-, -으키’ 등과 같은 파생접미사를 동사 뒤에 붙이고, 능동문의 주어를 목적어 또는 ‘-에게/한테/께’ 형태의 부사(부사어)로 바꾸고, 새 주어를 도입함으로써 사동문을 만드는 ‘파생적 사동’, 3) ‘-게 하다/만들다, -도록 하다/만들다’와 같은 통사적 구성을 동사 뒤에 붙이고, 새로운 주어를 도입함으로써 사동문을 만드는 방식인 ‘통사적 사동’ 등으로 비교적 세분화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이것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표 2> 한국어 사동의 체계 및 유형, 구성

구분/체계/		유형, 구성		용례 ¹⁴⁾
1	어휘적 사동 (‘시키다’와 같은 어휘 사용)	■ ‘결혼, 구경, 토론’ 등의 동작성 명사(목적어) + ‘시키다’	목적어+시키다	감동하다(감동을 시키다), 발언하다(발언을 시키다), 이해하다(이해를 시키다), ...(*놓혀 쓰기는 필자)
			목적어-시키다	감동하다(감동시키다), 발언하다(발언시키다), 이해하다(이해시키다), ...(*놓혀 쓰기는 필자)
2	파생적 사동 (파생 접미사 연결)	■ 형용사 + ‘-아-, -하-, -라-, -우-, -추 ; -애-’ ¹⁵⁾		높다→높이다, 넓다→넓히다, (배가)부르다→불리 다, 비다→비우다, 낮다→낮추다, 없다→없애다, ...
		■ 자동사 + ‘-아-, -하-, -라-, -가-, -우-, -구-, -추 ; -사-, -으키’		죽다→죽이다, 앉다→앉히다, 열다→열리다, 옷다→ 옷기다, 피다→피우다, 솟다→솟구다, (옷이)땀다→ 땀추다, (옷이 물에)젖다→적시다, (물결이)일다→일 으키다, ...
		■ 타동사 + ‘-아-, -하-, -라-, -가-, -우’		먹다→먹이다, 입다→입히다, 알다→알리다, (머리를)감다→감기다, 깨다→깨우다, ...
3	통사적 사동 (‘-게 하다/만들다’, ‘-도록 하다/만들다’와 같은 통사적 구성 형태)	■ 형용사 + ‘-게 하다/만들다, -도록 하다 /만들다’ ¹⁶⁾		넓게 하다/만들다, ...
		■ 자동사 + ‘-게 하다/만들다, -도록 하다 /만들다’		웃게 하다/만들다, ...
		■ 타동사 + ‘-게 하다/만들다, -도록 하다 /만들다’		읽게 하다/만들다, ...

14) 좀 더 다양한 어휘들의 용례는 김종록(2013: 327-339)에서 참조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지면 관계상 극히 일부만 언급하기로 한다.

15) 본문에서 미처 언급하지 못하였지만 몽골어 형용사의 경우 파생적 사동에 있어서 한국어의 경우와 일부 차이점을 갖는다. 즉, 한국어는 동사와 마찬가지로 형용사의 어간에 사동 파생접미사를 바로 연결해 사용하는데 반해, 몽골어는 먼저 형용사에 동사 파생접미사를 연결해 일차적으로 동사를 만들고 난 후 거기에 다시 사동 파생접미사를 연결한다. ‘Өндөр(높다)-өндөрсөх(높아지다)-өндөрсгөх(높이다: 직접행위)-өндөрсгүүдэх(높이게 하다: 간접행위)’, ‘өргөн(넓다)-өргөсөх(넓어지다)-өргөсгөх(넓히다: 직접행위)-өргөсгүүдэх(넓히게 하다: 간접행위)’ 등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위의 예들 중 өндөрсгүүдэх, өргөсгүүдэх는 이중 사동의 형태이다.

16) 통사적 사동에 있어서 몽골어 형용사는 한국어의 경우와 유사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즉, 한국어의 ‘-게 하다/만들다, -도록 하다/만들다’에 대응시킬 수 있는 ‘болгох(-게 하다, ...)’와 또한 이중 사동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болгуулах(-게 하도록 하다, -도록 하게 하다, ...)’를 사용하여 ‘형용사 + болгох’, ‘형용사 + болгуулах’ 등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각주 14)

1. 현대몽골어의 사동(파생적 사동)과 한국어의 어휘적 사동과의 대조

현대몽골어의 사동(파생적 사동)이란 자동사, 또는 타동사 어간에 ‘-уул’², ‘-лга’⁴, ‘-га’⁴, ‘-аа’⁴ 등과 같은 변이형 파생 접사들을 각각 연결한 형태, 유형을 말한다. 이들 중 빈도수가 제일 많은 것은 ‘-уул’² 접사이며, 그 다음이 ‘-га’⁴, ‘-лга’⁴, ‘-аа’⁴ 순이다(Д.Отгонсүрэн 1982: 37). 한편, 한국어의 어휘적 사동이란 김종록(2013: 327-329)에서 서술하고 있듯이 ‘시키다’와 같은 어휘를 써서 사동문을 만드는 방식(형태, 유형)을 가리킨다. 즉, “결혼, 구경, 토론 등의 동작성명사가 목적으로 쓰이고, 그 뒤에 ‘하다’가 서술어로 오는 경우인데, 이 ‘하다’를 ‘시키다’로 바꾸고, 사동주인 ‘시키다’의 주어를 새로 도입하면 된다.”고 언급하면서, “이때는 ‘결혼을 시키다’와 같은 ‘목적어+시키다’의 통사적 형태를 ‘결혼시키다’와 같은 ‘목적어-시키다’의 어휘형태로 바꿔 쓸 수도 있다.”라고 설명한 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¹⁷⁾

따라서 본 절에서는 현대몽골어의 파생적 사동 유형, 즉 자동사, 타동사 어간에 ‘-уул’², ‘-лга’⁴, ‘-га’⁴, ‘-аа’⁴ 등과 같은 파생 접사를 연결한 유형과 한국어의 어휘적 사동 유형, 즉, (결혼, 구경, 토론 등의) 동작성 명사 목적어 + 시키다, (결혼, 구경, 토론 등의) 동작성 명사 목적어-시키다 등과 같은 형태의 어휘들이 사용된 일부의 예들을 포함, 각종 예들을 서로 대응시켜 보면서 이들의 대응 양상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현대몽골어의 파생적 사동에 대한 일부 예와 한국어의 어휘적 사동을 포함한 기타 사동의(파생적 사동, 통사적 사동) 각종 대응 예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5) 1. Бат ахыгаа эмнэлэгт хэвтүүлсэн.

① 바트는 형을(나의) 병원에 눕[시켰다]. /어휘적 사동/

② 바트는 형을(나의) 병원에 입원[시켰다]. /어휘적 사동/ - 한자류 단어 -

의 예들 중 파생적 사동의 형태인 ‘өндөрсгөх(눕이다: 직접행위)’, ‘өндөрсгүүдэх(눕이게 하다: 간접행위)’, ‘өргөсгөх(넓히다: 직접행위)’, ‘өргөсгүүдэх(넓히게 하다: 간접행위)’를 각각 ‘өндөр болгох(높게 하다: 직접행위)’, ‘өндөр болгуулах(높이게 하다, 높게 하게 하다, ...), ‘өргөн болгох(넓게 하다: 직접행위)’, ‘өргөн болгуулах(넓히게 하다, 넓게 하게 하다, ...)’ 등으로 바뀌어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예문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Би ширээгээ жаахан өндөрсгөмөөр(өндөр болгомоор) байна.

① 나는 책상을 조금 높이고(높게 하고) 싶습니다.

2. Би мужаан дуудаж ширээгээ жаахан өндөрсгүүдмээр(өндөр болгуулмаар) байна.

① 나는 목수를 불러서 책상을 조금 높이게(높게 하게) 하고 싶습니다.

3. Энэ замыг өргөсгөмөөр(өргөн болгомоор) байна.

① 이 길을 넓히고(넓게 하고) 싶습니다.

4. Энэ замыг өргөсгүүдмээр байна.

① 이 길을 넓히게(넓게 하게) 하고 싶습니다.

17) 또한 이와 같은 현상을 보이는 어휘들을 비교적 자세히 언급하고 있기도 하다. 이들 어휘에 대해서는 김종록(2013: 328) 참조. 한편, “고분고분, 기웃기웃, 들쭉날쭉, 물랑물랑, 뻘뻘빠빠 등의 부사, ‘가득, 간절, 건강, 겸손, 어색’ 등의 상대성 명사, ‘땀, 떡, 머리, 아침, 자리’ 등의 구체적 명사가 목적으로 쓰이면 ‘시키다’에 의한 사동을 만들 수 없다.”고 하면서 “아버지는 영희에게 고분고분시켰다.,” “어머니는 영수에게 비교적 건강시켰다.,” “어머니가 언니에게 머리를 시켰다.” 같은 예문을 들었다. “급(急)하다, 망(亡)하다, 면(面)하다, 반(反)하다, 변(變)하다, 전(傳)하다, 청(請)하다, 취(取)하다, 칭(稱)하다, 피(避)하다, 향(向)하다” 등과 같이 ‘하다’가 앞의 말과 분리될 수 없는 어휘도 ‘시키다’에 의한 사동을 만들 수 없다.”고 정의하고 있다.

- ③ 바트는 형을(나의) 병원에 눅혔다. (눅-히-었-다) /파생적 사동/
- ④ 바트는 형을(나의) 병원에 눅(게, 도록) 했다(만들었다). /통사적 사동/
- ⑤ 바트는 형을(나의) 병원에 입원하(게, 도록) 했다(만들었다). /통사적 사동/

ㄴ. Дулмаа хүүхдээ сандал дээр суулгав.

- ① *돌마는 아이를 의자 위에(에) 앉[시]켰다. /어휘적 사동/
- ② 돌마는 아이를 의자 위에 앉혔다. (앉-히-었다) /파생적 사동/
- ③ 돌마는 아이를 의자 위에 앉(게, 도록) 했다(만들었다). /통사적 사동/

ㄷ. Бат дасгалаа Дулмаагаар хийлгэсэн.

- ① *바트는 숙제를(바트의) 돌마로(로 하여금) 하[시]켰다. /어휘적 사동/
- ② *바트는 숙제를(바트의) 돌마로(로 하여금) 하[이/히/리/기/우/구/추/애/시/으]키었다. /파생적 사동/
- ③ 바트는 숙제를(바트의) 돌마로(로 하여금) 하(게, 도록) 했다(만들었다). /통사적 사동/

ㄹ. Бат Дулмаагаар дасгалаа хийлгэсэн.

- ① 바트는 돌마로(로 하여금) 숙제(를)(바트의)하[시]켰다. /=숙제(를)시켰다/ /어휘적 사동/
- ② *바트는 돌마로(로 하여금) 숙제(를)(바트의) 하[이/히/리/기/우/구/추/애/시/으]키었다. /파생적 사동/
- ③ 바트는 돌마로(로 하여금) 숙제(를)(바트의) 하(게, 도록) 했다(만들었다). /통사적 사동/

ㅁ. Аюулт өвчин тэр хүнийг их зовоожээ.

- ① 무서운 병이 그 사람을 굉장히 걱정[시]켰다. /어휘적 사동/
- ② *무서운 병이 그 사람을 굉장히 걱정하[이/히/리/기/우/구/추/애/시/으]키었다. /파생적 사동/
- ③ 무서운 병이 그 사람을 굉장히 걱정하(게, 도록) 했다(만들었다). /통사적 사동/

위의 예문 (5. ㄱ, ㄴ, ㄷ, ㄹ, ㅁ)은 몽골어의 파생적 사동 예이고, 이에 직접적으로 대응, 대조시켜 볼 한국어의 어휘적 사동 예는 각각 (5. ㄱ. ①②), (5. ㄴ. ①), (5. ㄷ. ①), (5. ㄹ. ①), (5. ㅁ. ①)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예문에서 살펴보면 몽골어의 파생적 사동 유형은 일반적으로 (5. ㄱ. ①), (5. ㄴ. ①), (5. ㄷ. ①)처럼 한국어의 어휘적 사동 유형으로 바로 대응이 잘 되지는 않지만, 한편으로는 (5. ㄱ. ②), (5. ㄹ. ①), (5. ㅁ. ①)처럼 ‘걱정’ 등의 명사 또는 한자(漢字)류 단어에 따라 ‘입원시켰다(입원을 시켰다)’, ‘숙제시켰다(숙제를 시켰다)’, ‘걱정시켰다’처럼 일부 대응시킬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한국어의 한자류 단어로 사용할 수 있는 의미는 ‘한자류 단어+시키다’처럼 어휘적 사동 유형으로 바로 대응이 가능해 보인다.

한편, 그 밖에 한국어 동사의 어간에 ‘-아-, -하-, -리-, -가-, -우-, -구-, -추-, -애-, -시-, -으키-’ 등과 같은 사동 파생 접사를 연결한 유형, 즉 한국어의 파생적 사동에 해당하는 대응 예를 살펴보면, 각각 (5. ㄱ. ③), (5. ㄴ. ②), (5. ㄷ. ②), (5. ㄹ. ②), (5. ㅁ. ②)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5. ㄱ. ③), (5. ㄴ. ②)처럼 한국어 동사의 의미 자질, 특성에 따라 파생적 사동 유형으로 대응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5. ㄷ. ②), (5. ㄹ. ②), (5. ㅁ. ②)처럼 ‘하다’ 동사 또는 한자(漢字)류 단어의 동사형에는 대응시킬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한국어 단어(형용사, 자동사, 타동사)의 자질,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어 동사의 어간에 ‘-게 하다/만들다’, ‘-도록 하다/만들다’와 같은 통사적 구성 형태를 연결한 유형, 즉 한국어의 통사적 사동에 해당하는 대응 예를 살펴보면, 각각 (5. ㄱ.④⑤), (5. ㄴ.③), (5. ㄷ.③), (5. ㄹ.③), (5. ㄴ.③)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모두 한국어 단어의 자질, 특성과 관계없이 대부분 대응시킬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물론 단어의 성격, 전·후 문맥의 상황, 화자의 의도 등 다양한 환경 속에 담겨져 있는 각종 양태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지만 우선은 단편적으로 몽골어의 사동(사동문)은 한국어의 통사적 사동 형태로 대응시키는 것이 가장 무리가 없어 보인다.

2. 현대몽골어의 사동(파생적 사동)과 한국어의 파생적 사동과의 대조

여기에서는 3.1.절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는 현대몽골어의 파생적 사동과 한국어의 파생적 사동을 서로 비교, 대조해 보기로 한다.

한국어의 파생적 사동이란 자동사와 타동사 또는 형용사에 ‘-아’, ‘-히’, ‘-리’, ‘-기’, ‘-우’, ‘-구’, ‘-추’, ‘-애’, ‘-시’, ‘-으키-’(자동사 어간: ‘-아’, ‘-히’, ‘-리’, ‘-기’, ‘-우’, ‘-구’, ‘-추’, ‘-시’, ‘-으키-’, 타동사 어간: ‘-아’, ‘-히’, ‘-리’, ‘-기’, ‘-우’, ‘-구’, ‘-추’, ‘-애’, ‘-시’, ‘-으키-’) 등과 같은 파생접미사를 연결한 유형, 구성을 말한다. 김종록(2013: 329-333)에서는 이들을 각각 1) 자동사의 파생적 사동, 2) 타동사의 파생적 사동, 3) 형용사의 파생적 사동 등으로 구분해 살펴보고 있다. 그는 여기에서 자동사의 파생적 사동은 “자동사에 ‘-아-, -히-, -리-, -기-, -우-, -구-, -추- ; -시-, -으키-’를 붙이고, 주어를 목적어로 만든 뒤, 새 주어를 도입”해야 하고, 타동사의 파생적 사동은 “타동사에 ‘-아-, -히-, -리-, -기-, -우-’를 붙이고, 주어에 ‘-에게/한테/께’ 등을 붙여서 필수적 부사어로 만든 뒤, 새 주어를 도입”해야 하며, 형용사의 파생적 사동은 “형용사에 ‘-아-, -히-, -리-, -기-, -우-, -추-, -애-’를 붙이고, 주어를 목적어로 만든 뒤, 새 주어를 도입”해야 한다고 각각 언급하였다.¹⁸⁾

따라서 본 절에서는 현대몽골어의 파생적 사동 유형과 한국어의 파생적 사동 유형, 즉 자동사, 타동사의 어간에 ‘-아’, ‘-히’, ‘-리’, ‘-기’, ‘-우’, ‘-구’, ‘-추’, ‘-애’, ‘-시’, ‘-으키-’ 등과 같은 파생접미사가 연결된 일부의 예들을 포함, 각종 대응 양상들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현대몽골어의 파생적 사동에 대한 일부 예와 한국어의 파생적 사동을 포함한 기타 사동의(어휘적 사동, 통사적 사동) 각종 대응 예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6) ㄱ. Эж хүүхүүддээ дулаан хувцас өмсгөв.

① *엄마는 애들에게(엄마의) 따뜻한 옷을 입[시켰다]. /어휘적 사동/

② 엄마는 애들에게(엄마의) 따뜻한 옷을 착용[시켰다]. /어휘적 사동/ -한자류 단어

18) ‘자동사의 파생적 사동’, ‘타동사의 파생적 사동’, ‘형용사의 파생적 사동’과 관련한 여러 단어의 예들은 김종록(2013: 329-333)을 참조.

- ③ 엄마는 애들에게(엄마의) 따뜻한 옷을 입혔다.(입-히-었다) /파생적 사동/
 ④ 엄마는 애들에게(엄마의) 따뜻한 옷을 입(게, 도록) 했다(만들었다). /통사적 사동/
 ⑤ 엄마는 애들에게(엄마의) 따뜻한 옷을 착용하(게, 도록) 했다(만들었다). /통사적 사동/

ㄴ. Би дүүгээрээ түлээгээ хагалуулав.

- ① *나는 동생으로(로 하여금) 장작을 꽤(시)켰다. /어휘적 사동/
 ② *나는 동생으로(로 하여금) 장작을 꽤(이/히/리/기/우/구/추/애/시/으)키었다. /파생적 사동/
 ③ 나는 동생으로(로 하여금) 장작을 꽤(게, 도록) 했다(만들었다). /통사적 사동/

ㄷ. Чи талхаа бүр хатаачихжээ. /그러면 안 되는데 너 빵을 완전히 말려버렸네~~ 뉘앙스/

- ① *너 빵을 완전히 마르(시)켰다.(시켜버렸다) /어휘적 사동/
 ② 너 빵을 완전히 건조(시)켰다.(시켜버렸다) /어휘적 사동/ -한자류 단어-
 ③ 너 빵을 완전히 말렸다.(말-리-었다)(말려버렸다) /파생적 사동/
 ④ 너 빵을 완전히 마르(게, 도록) 했다(만들었다). /통사적 사동/

ㄹ. Би Багад Доржоор хэдэн ном хургэлээ. /나는 바트에게 더르지로(로 하여금) 몇 권의 책을 전달하게 했다./

- ① *나는 바트에게 더르지로(로 하여금) 몇 (권의) 책을 도착(시)켰다. /어휘적 사동/
 ② 나는 바트에게 더르지로(로 하여금) 몇 (권의) 책을 전달(시)켰다. /어휘적 사동/ -한자류 단어-
 ③ *나는 바트에게 더르지로(로 하여금) 몇 (권의) 책을 도착(이/히/리/기/우/구/추/애/시/으)키었다. /파생적 사동/
 ④ 나는 바트에게 더르지로(로 하여금) 몇 (권의) 책을 ?도착하, 전달하(게, 도록) 했다(만들었다). /통사적 사동/

ㅁ. Би Багад Доржоор хэдэн ном хургүүллээ. /나는 바트에게 더르지로(로 하여금) 몇 권의 책을 전달하게 하도록 했다(전달하도록 하게 했다)./

- ① *나는 바트에게 더르지로(로 하여금) 몇 (권의) 책을 도착(시)켰다. /어휘적 사동/
 ② 나는 바트에게 더르지로(로 하여금) 몇 (권의) 책을 전달(시)켰다. /어휘적 사동/ -한자류 단어-
 ③ *나는 바트에게 더르지로(로 하여금) 몇 (권의) 책을 도착(이/히/리/기/우/구/추/애/시/으)키었다. /파생적 사동/
 ④ 나는 바트에게 더르지로(로 하여금) 몇(권의) 책을 ?도착하, 전달하(게, 도록) 하(게, 도록) 했다(만들었다). (전달하게 하도록 했다, 전달하도록 하게 했다) /통사적 사동/

위의 예문들을 살펴보면 몽골어의 파생적 사동 유형은 (6. ㄱ. ③), (6. ㄷ. ③)처럼 한국어의 파생적 사동 유형으로 바로 잘 대응되는 경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동사의 성격, 특질에 따라 (6. ㄴ. ②), (6. ㄷ. ③) (6. ㄹ. ③), (6. ㅁ. ③)처럼 대응시킬 수 없는 경우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그 밖에 ‘시키다’와 같은 어휘를 사용해 ‘결혼, 구경, 토론 등의 동작성 명사(목적어)+시키다’, ‘결혼,

구경, 토론 등의 동작성 명사-시키다' 등과 같은 형태의 어휘들이 사용되는 유형, 즉 한국어의 어휘적 사동에 해당하는 대응 예로서는 각각 (6. ㄱ.①②), (6. ㄴ.①), (6. ㄷ.①②), (6. ㄹ.①②), (6. ㅁ.①②)처럼 대응시켜 볼 수 있겠지만, 이들은 예문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곧바로 잘 대응시킬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다만, (6. ㄱ.②), (6. ㄷ.②), (6. ㄹ.②), (6. ㅁ.②)처럼 같은 의미의 한자류 단어로 바꾸어 사용할 수가 있다면 이것은 비교적 큰 무리 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한자류 단어는 어휘적 사동 표현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비교적 많다. 하지만 이러한 점은 한자류 단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에게는 한계점으로 다가올 수 있다.

또한 한국어 동사의 어간에 '-게 하다/만들다', '-도록 하다/만들다'와 같은 통사적 구성 형태를 연결한 유형, 즉 한국어의 통사적 사동에 해당하는 대응 예를 살펴보면, 각각 (6. ㄱ.④⑤), (6. ㄴ.③), (6. ㄷ.④), (6. ㄹ.④), (6. ㅁ.④)을 들 수 있는데, 대부분 별 무리 없이 대응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는 점은 한국어 단어의 성격, 특질에 따라 직관적으로 바로 대응 형태가 생각난다면 앞서 언급한 어휘적 사동, 파생적 사동으로 대응시킬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게 하다/만들다', '-도록 하다/만들다'의 통사적 사동 형태를 대응시키면 큰 무리 없이 의미 전달이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앞서 본 글의 2장에 있는 예문 (4. ㄴ) 부분에서도 짧게 언급한 바 있고, 상대적으로 아주 많이 사용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예문 (6. ㅁ)과 같은 '이중 사동'의 대응예가 어렵게 다가온다. 즉, (4. ㄴ) 예문의 경우는 단어의 성격상 '태우다(타-이-우다)'라는 어휘가 이미 이중 중첩의 성격을 가지니 'шарашив'와의 대응 시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닐 때에는 과연 어떻게 대응시킬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전체 문장의 문맥에 따라 의미가 첨가 되거나 생략 되는 경우도 있어 이를 정확하게 일대일 대응 시키기는 쉽지가 않다. 물론 위와 같이 바로 대응이 가능한 경우 외에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파생적 사동 유형(단형)'에 '-게 하다/만들다, -도록 하다/만들다'(통사적 사동-장형) 형태를 함께 쓰는 것, 예를 들어 '먹히게(도록) 하다/먹+히+게(도록) 하다', '눕히게(도록) 하다/눕+히+게(도록) 하다', '피우게(도록) 하다/피+우+게(도록) 하다'처럼 대응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6. ㅁ)처럼 '파생적 사동 유형(단형)'이 대응이 안 되는 경우는 위의 경우들처럼 대응시킬 수가 없으므로 다른 대응 예를 찾아봐야 할 것이다.

문맥상 반드시 일대일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일대일 대응이 가능한 경우라면 그 예를 찾아 대응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향후 좀 더 많은 예문을 갖고 세밀히 들여다 봐야겠지만 현재까지의 생각으로는 '-게+하도록 하다', '-도록+하게 하다'가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6. ㅁ.④)처럼 '전달하게 하도록 했다/전달하게+하도록 했다' 또는 '전달하도록 하게 했다/전달하도록+하게 했다'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전달하게 했다', '전달하도록 했다'와 그다지 큰 차이는 없는 듯하다.

3. 현대몽골어의 사동(파생적 사동)과 한국어의 통사적 사동과의 대조

여기에서는 현대몽골어의 파생적 사동과 한국어의 통사적 사동을 서로 비교, 대조해 보기로 한다.

한국어의 통사적 사동이란 형용사, 자동사, 타동사의 어간에 '-게 하다/만들다', '-도록 하다/만들다'와 같은

통사적 구성 형태를 연결한 유형, 방식이다. 통사·의미적 제약이 적어서 대부분의 형용사 및 동사 뒤에 연결해 이들을 사동표현으로 만들 수 있으며, 앞서 언급한 파생적 사동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

김종록(2013: 333-338)에서는 이들을 각각 1) 형용사의 통사적 사동, 2) 자동사의 통사적 사동, 3) 타동사의 통사적 사동 등으로 구분해 살펴보고 있다. 그는 여기에서 형용사의 통사적 사동은 “형용사에 ‘-게 하다/만들다, -도록 하다/만들다’를 붙이고, 주어를 목적으로 만든 뒤, 새 주어를 도입해야 한다.”, 자동사의 통사적 사동은 “자동사에 ‘-게 하다/만들다, -도록 하다/만들다’를 붙이고 주어를 목적으로 만든 뒤, 새 주어를 도입해야 한다.”, 타동사의 통사적 사동은 “타동사에 ‘-게 하다/만들다, -도록 하다/만들다’를 붙이고, 주어를 그대로 두거나 혹은 목적어/부사어로 만든 뒤, 새 주어를 도입해야 한다.”고 각각 정의하였다.¹⁹⁾

따라서 본 절에서는 현대몽골어의 파생적 사동 유형과 한국어의 통사적 사동 유형, 즉 형용사, 동사의 어간에 ‘-게 하다/만들다’, ‘-도록 하다/만들다’와 같은 통사적 구성 형태가 연결된 일부의 예들을 포함, 각종 대응 양상들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현대몽골어의 파생적 사동에 대한 일부 예와 한국어의 통사적 사동을 포함한 기타 사동(어휘적 사동, 파생적 사동)의 각종 대응 예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 (7) ᠭ. Дорж хүүдээ сүү уулгав. /더르지는 아이에게 우유를 먹였다(마시게 했다)./
 ① *더르지는 아이에게(더르지의) 우유를 먹[시켰다]. /어휘적 사동/
 ② 더르지는 아이에게(더르지의) 우유를 먹였다.(먹-인-었다) /파생적 사동/
 ③ 더르지는 아이에게(더르지의) 우유를 먹(게, 도록) 했다(만들었다). /통사적 사동/
 ᠨ. Та хүүхдээ их л өлсгөжээ. /굶기면 안 되는데 당신 애를 너무 굶렸네요~~ 뉘앙스/
 ① *당신 아이에게(당신의) 너무 굶[시켰다]. /어휘적 사동/
 ② 당신 아이에게(당신의) 너무 굶렸다.(굶-기-었다) /파생적 사동/
 ③ 당신 아이에게(당신의) 너무 굶(게, 도록) 했다(만들었다). /통사적 사동/
 ᠳ. Баяр хэд хэдэн хурга, ишиг үхүүлэв. /죽게 하면 안 되는데 바야르가 몇몇 새끼 양과 새끼 염소를 죽게 만들었다는 뉘앙스/
 ① *바야르는 몇몇 새끼 양과 새끼 염소를 죽[시켰다]. /어휘적 사동/
 ② 바야르는 몇몇 새끼 양과 새끼 염소를 죽였다.(죽-인-었다) /파생적 사동/
 ③ 바야르는 몇몇 새끼 양과 새끼 염소를 죽(게, 도록) 했다(만들었다). /통사적 사동/
 ᠷ. Байрныхаа жоомыг хүн гуйж устгасан.
 ① *집의 바퀴벌레를 사람에게 부탁해서 없[시켰다]. /어휘적 사동/

19) 뿐만 아니라 한국어의 통사적 사동은 일반적으로 1) 통사·의미적 제약이 적어서 파생적 사동보다 더 많이 사용되며, ‘이다’를 제외한 대부분의 동사 뒤에 쓰일 수 있음. 2) ‘급(急)하다, 망(亡)하다, 면(面)하다, 반(反)하다, 변(變)하다, 전(傳)하다, 청(請)하다, 취(取)하다, 칭(稱)하다, 피(避)하다, 향(向)하다’ 등과 같이 ‘하다’가 앞의 말과 분리될 수 없는 어휘는 ‘시키다’에 의한 어휘적 사동과 파생적 사동을 만들 수 없지만, ‘-게 하다/만들다’에 의한 통사적 사동은 가능한. 3) 파생적 사동은 주로 ‘직접사동(주어가 직접적인 행위를 하는 것)’의 의미를 지니며, 통사적 사동은 주로 ‘간접사동(주어가 간접적으로 행위를 하는 것)’의 의미를 지닌다. 4) 파생적 사동과 통사적 사동은 ‘아니, 못’ 등의 부정소의 작용범위에 차이가 있음. 5) 시간 부사어의 쓰임에 차이가 있음 등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고 언급하였다(김종록 2013: 335-338).

- ② 집의 바퀴벌레를 사람에게 부탁해서 소멸(시켰다). /어휘적 사동/ -한자류 단어-
 ③ 집의 바퀴벌레를 사람에게 부탁해서 없었다.(없-애-쓰-다) /파생적 사동/
 ④ 집의 바퀴벌레를 사람에게 부탁해서 없애(게, 도록) 했다(만들었다). /통사적 사동/

□. Байрныхаа жоомыг хүн гуйж устгуулсан.

- ① *집의 바퀴벌레를 사람에게 부탁해서 *없(시켰다). /어휘적 사동/
 ② 집의 바퀴벌레를 사람에게 부탁해서 없었다.(없-애-쓰-다) /파생적 사동/
 ③ 집의 바퀴벌레를 사람에게 부탁해서 없애(게, 도록) 했다(만들었다). /통사적 사동/
 ④ 집의 바퀴벌레를 사람에게 부탁해서 없애(게, 도록) 하(게, 도록) 했다(만들었다).
 (없애게 하도록 했다, 없애도록 하게 했다) /통사적 사동/

이들 예문에서 살펴보면 몽골어의 파생적 사동 유형은 일반적으로 통사적 사동 유형인 (7.ㄱ.③), (7.ㄴ.③), (7.ㄷ.③), (7.ㄹ.③), (7.ㅁ.③④)의 ‘먹게(도록) 했다’, ‘굶게(도록) 했다’, ‘죽게(도록) 했다’, ‘없애게(도록) 했다’, ‘없애게 하도록 했다(없도록 하게 했다)’처럼 비교적 대부분 잘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그 밖에 한국어의 어휘적 사동에 해당하는 대응 예로서 각각 (7.ㄱ.①), (7.ㄴ.①), (7.ㄷ.①), (7.ㄹ.①), (7.ㅁ.①)을 들 수 있겠지만, 이들은 예문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대부분 잘 대응시킬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곳 예문들에는 없지만 앞의 예문 (6.ㄱ.②), (6.ㄷ.②), (6.ㄹ.②), (6.ㅁ.②)처럼 한자(漢字)류 단어에는 활발히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어 동사의 어간에 ‘-이-, -하-, -라-, -기-, -우-, -구-, -추-, -애-, -사-, -으키-’ 등과 같은 사동 파생 접사를 연결한 유형, 즉 한국어의 파생적 사동에 해당하는 대응 예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7.ㄱ.②), (7.ㄴ.②), (7.ㄷ.②), (7.ㄹ.③), (7.ㅁ.②)처럼 문맥, 동사의 성격, 특질 등에 따라 결정되지만 이곳에서는 한국어의 파생적 사동 유형으로 비교적 바로 잘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현대몽골어의 사동(파생적 사동)은 형태적으로 한국어의 파생적 사동으로만 대응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후 문맥의 상황이나 화맥, 사용되는 동사(단어, 어휘)의 성격이나 특질, 의미 등에 따라서 어떤 때에는 파생적 사동으로, 또 어떤 때에는 어휘적 사동이나 통사적 사동으로 밖에 대응시킬 수 없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즉 현대몽골어의 사동(파생적 사동) 유형이 형태론적으로 한국어의 파생적 사동에 해당함으로 이에 1차적으로 대응 가능한 한국어의 파생적 사동 유형으로만 옮길 수 있다는 식의 절대적, 일대일 대응은 사실상 불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한국어의 파생적 사동 유형으로 아예 대응시킬 수 없는 경우도 많이 발견할 수 있었고, 설령 대응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 밖의 어휘적 사동이나 통사적 사동 유형으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즉, 일대다 대응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물론 통사적 사동 유형으로는 대부분 대응이 가능함을 살펴볼 수도 있었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현대몽골어의 ‘사동(使動, causative)’에 대한 유형, 구성 및 그의 의미, 기능 등을 종합, 정리해 살펴보고, 이를 기준으로 한국어의 사동과 서로 대조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얻을 수 있었다.

- 현대몽골어와 한국어 모두 자동사, 타동사 어느 것이나 사동 접사(몽골어: ‘-үүл², ‘-лга⁴, ‘-га⁴, ‘-аа⁴, 한국어: ‘-이-, ‘-하-, ‘-라-, ‘-가-, ‘-우-, ‘-구-, ‘-추-, ‘-시-, ‘-으키-’ 등)를 연결해 타동사 사동을 만든다. 이러한 파생적 사동이 일반 보편적이다.
- 현대몽골어와 한국어의 사동은 서술어에서 나타나는 특정 동작·행위를 주어가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제3의 다른 자로 하여금 하게 하거나 어떤 상태에 이르게 만드는 표현 형태(방법)이다.
- 사동문의 경우 주어는 어느 특정 행위의 직접적인 실제 행위주가 아니라 다른 행위자에게 행위를 하게 하는(시키는) 존재임을 나타낸다.

자동사에서 파생된 사동(사동문)의 경우 실제 행위주는 목적격 어미(몽골어: ‘-ыг/ийг, -г, 목적격 의미의 $\emptyset$, 한국어: ‘-을/를, 목적격 의미의 $\emptyset$)를 취한 형태로 나타난다.

타동사에서 파생된 사동(사동문)의 경우 실제 행위주는 여·처격 어미(몽골어: ‘-д/г’, 한국어: ‘-에게/-한테, -께/’)나 또는 도구격 어미(몽골어: ‘-аар⁴, 한국어: ‘-로(-로 하여금)’를 취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점은 양 언어가 유사한 점이라 할 수 있다.

- 현대몽골어와 한국어의 사동은 일반적으로 활용 방법 면에서 유사한 면을 보인다.

자동사에서 파생된 사동(사동문)의 경우 능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의 목적어가 되고, 새로운 주어가 들어가(나타나) 사용된다. 능동문의 주어가 사동문의 목적어가 되면서 목적격 어미(몽골어: ‘-ыг/ийг, -г, 목적격 의미의 $\emptyset$, 한국어: ‘-을/를, 목적격 의미의 $\emptyset$)를 취하게 된다.

타동사에서 파생된 사동(사동문)의 경우 능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의 부사어가 되며, 새로운 주어가 들어가(나타나) 사용된다. 능동문의 주어가 사동문의 부사어가 되면서 여·처격 어미(몽골어: ‘-д/г’, 한국어: ‘-에게/-한테, -께/’)나 또는 도구격 어미(몽골어: ‘-аар⁴, 한국어: ‘-로(-로 하여금)’를 취하게 된다.

- 한국어의 사동(사동 표현, 사동법)은 일반적으로 1) ‘시키다’와 같은 어휘를 써서 사동문을 만드는 방식인 ‘어휘적 사동’, 2) ‘-이-, -하-, -라-, -가-, -우-, -구-, -추-, -애-, -시-, -으키-’ 등과 같은 파생접미사를 동사 뒤에 붙이고, 능동문의 주어를 목적어 또는 ‘-에게/한테/께’ 형태의 부사(부사어)로 바꾸고, 새 주어를 도입함으로써 사동문을 만드는 ‘파생적 사동’, 3) ‘-게 하다/만들다, -도록 하다/만들다’와 같은 통사적 구성을 동사 뒤에 붙이고, 새로운 주어를 도입함으로써 사동문을 만드는 방식인 ‘통사적 사동’ 등으로 비교적 세분화되어 있는 반면에 현대몽골어의 사동은 ‘-үүл², -лга⁴, -га⁴, -аа⁴와 같은 형태의 사동 접사를 동사의 어간에 연결해 사동의 의미를 표현하는 파생적 사동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한국어에 비

해 상대적으로 다양하지 못하다는 차이점을 갖는다.

현대몽골어뿐만 아니라 한국어의 경우도 사동(사동문, 사동 표현)이 어느 하나의 의미, 기능만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후 문맥의 상황, 주변 환경, 담화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중의성을 지닌 채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문장 또는 문맥 내에서 그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해 적절한 대응형태를 선택, 사용해야 할 것이다.

본고의 논의 전개에 있어서 다양한 측면에서 좀 더 심도 있고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못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여러 측면에서의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논의는 향후의 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참고문헌〉

- 권재일, 『한국어 문법론』, 태학사, 2013.
- 김기선, 현대 몽골어와 한국어의 사동과 피동구문 대조 연구, 『몽골학』 20, 한국몽골학회, 2006, 73~95쪽.
- 김기성, 『현대 몽골어 교본』, 한림대학교 출판부, 1994.
- 김기성, 몽골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현대몽골어와 한국어의 피동 대조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14: 3,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7, 91~112쪽.
- 김종록, 『외국인을 위한 표준 한국어문법』, 도서출판 박이정, 2013.
- 金芳漢·金周源·鄭堤文, 『몽골어와 통구스어』, 민음사, 1986.
- 김형배, 『국어의 사동사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1997.
- 남기심·고영근·유현경·최형용, 『새로 쓴 표준 국어문법론』, 한국문화사, 2019.
- 왕녕박, 한중 사동과 피동 대조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7.
- 왕문용·민현식, 『국어 문법론의 이해』, 개문사, 1993.
- 우형식, 『학습 활동을 겸한 한국어 문법론』,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3.
- 유원수, 『몽골의 언어와 문화』, 소나무, 2009.
- 이관규, 『국어 교육을 위한 국어 문법론』, 집문당, 2005.
- 이익섭, 『한국어 문법』,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 임호빈·홍경표·장숙인,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 I』,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9.
- 체렌덴델 절자야, 한국어와 몽골어의 피동구문 대조 연구, 동아대학교국제전문대학원 글로벌한국학전공 석사학위논문, 2015.
- 최현배,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1994.
- Б.Базилхан, үйл үгийн хэв,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 зүй』, Улсын хэвлэлийн хэрэг эрхлэх хороо, Улаанбаатар, 1966.

- Д.Отгонсүрэн,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үйл үгийн хэв, байдлын дагаврын найруулгын үүрэг』, Улаанбаатар, 1982.
- Л.Болд,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дагавар』, Улсын хэвлэлийн газар, Улаанбаатар, 1986.
- Л.Лхагва, Арван тавдугаар хичээлийн хэлзүйн тайлбар, 『Монгол хэл сурах бичиг』, БНМАУ Сайд нарын зөвлөлийн улсын дээд, тусгай дунд, техник мэргэжлийн боловсролын хорооны хэвлэл, Улаанбаатар, 1976.
- Л.Мишиг, 『Орчин үеийн монгол бичгийн хэлний дадлагын хэл зүй』, Улаанбаатар, 1978.
- П.Бямбасан, Монгол хэлний үйл үгийн хэв,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үгзүйн байгуулалт - Монгол хэлний үйл үгийн тогтолцоо』, БНМАУ Ардын боловсролын яамны сурах бичиг, сэтгүүлийн нэгдсэн редакцийн газар, Улаанбаатар, 1987.
- Ц.Жанчивдорж, Б.Рагчаа, 『Монгол хэлний үг зүй - VI ангид үзнэ』, Улаанбаатар, 1967.
- Ц.Өнөрбаян, Л.Жумдаан, үйл үгийн хэвийн ай,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 Монгол Улсын Болвсролын Их Сургууль Монгол Судлалын Сургууль Монгол Хэлшинжтэлийн тэнхим, Улаанбаатар хот, 2012.
- Цэндсүрэнгийн Тэрбиш, 『Монгол хэл өөрөө сур』, Улаанбаатар, 1994.
- Ш.Лувсанвандан,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бүтэц - Монгол хэлний үг, нөхцөл хоёр нь』, Улаанбаатар, 1968.
- Ю.Мөнх-Амгалан, Кан Шин,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бүтээвэр судлал II』, Улаанбаатар, 2014.
- Rita Kullmann, D. Tserenpil, 『Mongolian Grammar』, Jensco Ltd., Hong Kong, 1996.

* 이 논문은 2019년 8월 23일에 투고되어,
2019년 9월 9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9년 10월 27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10월 28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Abstract

A Contrastive Study between the Causative Form of Modern Mongolian and Korean [For Korean Learners of Mongolian]

Kim, Kisung*

This study examines the types, composition, meaning, and function of the causative form(사동, 使動) of the modern-day Mongolian language, and analyzes it by comparing with the causative form of the Korean language. The finding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 In a causative sentence, the subject means that it is the one that has the other agent do an act rather than a actual agent(direct agent) of a specific act.

In case of causative(causative sentence) derived from intransitive verb, the actual agent appears in the form of having objective ending(Mongolian: ‘-ыг/ийг, -г, Ø’ of objective meaning, Korean: ‘-eul/reul[-을/를], Ø’ of objective meaning).

In case of causative(causative sentence) derived from transitive verb, the actual agent appears in the form of having dative · locative ending(Mongolian: ‘-д/т’, Korean: ‘-ege/hante/gge[-에게]/[한테]’ or instrumental ending(Mongolian: ‘-аар’, Korean: ‘-ro[-로](-ro hayeogeum[-로 하여금])’). These can be considered as the similarity of the two languages.

■ The causatives of modern Mongolian and Korean generally show similarity in the usage methods.

In case of causative(causative sentence) derived from intransitive verb, the subject of active sentence becomes the object of causative sentence, and new subject appears. As the subject of active sentence becomes the object of causative sentence, it takes the objective ending(Mongolian: ‘-ыг/ийг, -г, Ø’ of objective meaning, Korean: ‘-eul/reul[-을/를], Ø’ of objective meaning).

In case of causative(causative sentence) derived from transitive verb, the subject of active sentence becomes the adverb of causative sentence, and new subject appears. As the subject of active sentence becomes the adverb of causative sentence, it takes dative · locative ending (Mongolian: ‘-д/т’, Korean: ‘-ege[-에게]/-hante[-한테]’ or instrumental ending(Mongolian:

* Non-tenure track Assistant Professor, Dankook University

‘-aap’⁴⁾, Korean: ‘-ro[-로](-ro hayeogeum[-로 하여금])’.

■ The causative(causative expression, causative method) of Korean is divided into 1) ‘language causative form’ that makes causative sentence using such word as ‘sikida[시키다]’, 2) ‘derivative causative form’ that makes causative sentence by putting derivative suffixes such as ‘-i[-이-], -hi[-히-], -ri[-리-], -gi[-기-], -u[-우-], -gu[-구-], -chu[-추-], -ae[-애-], -si[-시-] and -euki[-으키-], changing the subject of active sentence to object or adverb in the form of ‘-ege/hante/gge[-에게]/[한테]/[께]’, and adopting new subject, and 3) ‘syntactic causative form’ that makes causative sentence by putting syntactic configurations such as ‘-ge hada/mandeulda[-게 하다/만들다]’ and ‘-dorok hada/mandeulda [-도록 하다/만들다]’ at the stem of verb and adopting new subject. Whereas, the most general form in the causative of modern Mongolian is the derivative causative form that expresses the meaning of causative by connecting causative affixes such as ‘-yyл’²⁾, -лгa’⁴⁾, -ra’⁴⁾, -aa’⁴⁾ to the stem of verb. Therefore, modern Mongolian is not as various as Korean.

[Key Words] korean learners of Mongolian(몽골인 한국어 학습자), modern Mongolian(현대몽골어), Korean(한국어), passive(피동), causative(사동), active(능동), voice(태), agent(행위주), actual agent(실제 행위주), language causative form(어휘적 사동(형)), derivative causative form(파생적 사동(형)), syntactic causative form(통사적 사동(형))